小兒疳症에 關한 文獻的考察

吳何錫* · 金璋顯**
*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小兒科 專攻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Ⅰ. 緖論

疳症은 小兒가 脾胃損傷으로 傳化가 失調되어 臟腑가 營養을 받지 못하고 形體가 虛弱하고 羸瘦해지는 慢性病症으로 小兒科 四大 要證인 痧, 痘, 驚, 疳 (卽痲疹, 天花, 驚風, 疳症)의 하나이며 小兒科에서 비교적 發病率이 높은 疾患이다.[6,16,26]

疳症의 疳은 두 가지 意味로 해석되고 있는데 하나는 <醫學正傳 諸疳設>[24]에서 "대개 그 病은 肥甘으로 인한 所致이니 疳이라 名한다"고했듯이 肥甘厚味를 過食하여서 脾胃를 損傷하여 疳을 이루게 된 까닭으로 "疳者甘也"라[9,10,11] 했으며 다른 하나는 "疳은 乾이니 脾胃津液이 乾涸해진 疾患이다"[2,28]라하였고 또한 "疳은 乾而瘦也"라고[7,8,16] 하여 그 病機에 따라 "疳者乾也"[7,8,10,11]라 했다.

疳의 原因에 관하여 許[10,11]에 의하면 "疳病은 흔히 젖을 정상적으로 먹이지 않았거나 기름지고 맛이 있는 飮食을 調節해 먹이지 못하고 腸胃에 積滯가 생겨서 된다."고 했고 崔[8,30]는 "脾胃虛弱에서 시작하여 血氣不足하고 乳食太過하며 肥甘不絶하거나 或은 吐瀉의 後遺症으로 內部의 津液이 不足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疳症에 關하여 처음으로 言及된 곳은 隋代에 巢元方의 <諸病原候論 虛勞骨蒸候>[19]로 "久蒸不除 多變成疳" 이라 하여 疳症이 內傷으로 인한 慢性虛弱 病症임을 表現하였는데 이것은 後代 兒科 醫家들의 疳症理論에 基礎가 되었으며 錢[30]은 五臟을 爲主로 한 辨證方法으로 疳症을 肝, 心, 脾, 肺, 腎, 筋, 骨疳의 七類로 分類하고 "疳皆脾胃病 亡津液所作也"라 하여 大病을 앓거나 吐瀉後 또는 吐下法을 誤用하여 脾氣를 損傷해서 脾胃虛弱해지고 津液을 損傷하면 疳症을 이루게 된다고 하여 疳症에 관한 體系的인 硏究를 이루었다.[16,22,26]

疳症에 대한 硏究는 李[15]의<小兒의 食慾不振에 관한 文獻的 考察>에 대한 硏究가 있고 金[12]의<虛弱兒에 대한 臨床的 考察>에 관한 硏究와 愼[13]의<小兒虛症에 關한 文獻的考察>, 兪[14]의<虛弱兒에 대한 文獻的 考察>은 있었으나 小兒 營養障碍 疾患에 대한 具體的인 硏究資料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著者는 小兒 四大 要證의 하나인 疳證의 意味와 分類에 관한 文獻的 考察을 통하여 硏究한 바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疳의 槪念

1). 東醫寶鑑[8,10,11]

疳이란 "마를 乾"자이다. 여위고 말라서 血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20살以前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疳"이라고 하고 20살 以上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癆라고 하는데 모두 氣血이 虛弱하고 五臟 六腑가 傷하기 때문에 五臟疳이 있다.

疳病은 기름지고 단 飮食을 많이 먹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달 감(甘)"자의 음을 따서 疳病이라고 한 것이다.(正傳)24)

2). 景岳全書[2,28]

楊氏가 말하기를 大抵 疳은 乾이니 脾胃의 津液이 乾涸하여서 病이 되는데 小兒에서는 五疳이 되고 어른들에서는 五癆가 되니 모두 胃氣를 調補하는 것을 爲主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3). 幼幼集成[33]

무릇 疳病은 또한 小兒에서 惡候이다. 十六歲 以前은 其病이 疳이 되고 十六歲 以下에서 其病은 癆가 된다. 모두가 眞元이 怯弱해지고 氣血이 虛衰해진 所致이다.

4). 小兒科秘方[7]

"疳이라한 것은 乾이니 瘦悴血少를 意味한 것으로서 十五歲以前을 疳이라 하고 十五歲以後를 癆라 한다."

5). 小兒醫方[8]

"疳者乾也 瘦悴少血也 十五歲以前曰疳以後爲癆也"

2. 疳의 病因病機

1). 小兒藥證直訣[30]

① 疳證은 모두 脾胃病으로 亡津液하여 發한다. 大病이나 或吐瀉後에 藥으로 吐下시켜서 脾胃虛弱을 治하여 亡津液하여 또한 小兒疳病을 이루니 모두가 愚醫가 壞病을 만든 것이다.

② 가령 潮熱은 一臟이 虛하고 一臟은 實하여 內에서 虛熱이 發하는 것으로 마땅히 補其母하고 本臟을 瀉하면 낫는다. 假令 日中에 潮熱이 發하는 것은 心虛熱에 속한다. 肝은 心의 母이니 先補肝하여 肝實하게 한 以後에 心을 瀉함이 마땅하다. 心이 母氣를 얻으면 內平하니 潮熱이 낫게 된다. 醫師가 潮熱을 보고 妄靈되게 實이라 하여 大黃,牙硝輩의 諸冷藥으로 利하면 利가 過多해져 禁約하지 못하게 되고 津液이 內亡되어 疳을 이루게 된다.

③ 또한 癖病이 있어 그 病이 發作하여 寒熱이 往來하고 飮水하고 脇下에 有形의 硬痛이 있는 癖症을 治하는 法은 漸次로 消磨하여야 마땅하거나 醫師가 도리어 巴豆,珠砂輩로 下하면 小兒는 易虛易實하므로 下하는것이 過度하여 胃中津液을 耗損하게 되어 漸漸 疳瘦하게 되는 것이다.

④ 또한 傷寒 五六日間에 下해야 할 證이 있어 冷藥으로 지나치게 下하면 脾胃津液이 減少하여 引飮不止하고 熱을 生하게 하여 熱氣가 內部를 耗

傷하고 肌肉이 外消하며 他邪와 相干하여 다양하게 証變하니 이로 因하여 또한 疳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⑤ 또한 吐瀉가 오래 지속되거나 或은 醫師 함부로 下하여서 그 虛가 더욱 甚해져서 津液이 燥해지고 損傷되면 또한 疳症을 이루게 된다.

2).活幼心書[32)]

曾氏가 말하기를 大抵 疳病이 되는 것은 모두가 飮食을 過度하게 섭취했기 때문으로 脾家의 一臟에 積이 있어 不治하면 나머지 臟으로 傳하여 五疳을 이루게 된다. 만약 脾家病이 去하면 臟이 모두 安靜되니 진실로 적절한 治療를 하지 못하고 오래 시일이 지나면 必히 傳變하게 된다.

3). 東醫寶鑑[10,11)]

疳病은 흔히 젖을 정상적으로 먹이지 않았거나 기름지고 맛이 있는 飮食을 調節해 먹이지 못하고 腸胃에 積滯가 생겨서 된다.

4). 景岳全書[2,28)]

① 錢仲陽說

錢仲陽이 말하기를 小兒의 諸疳은 모두가 病後에 脾胃가 虧損하였거나 또는 用藥을 과도히 하여 傷해서 乳食을 傳化할 수 없어 內로 亡津液하여 虛火가 妄動하거나 또는 乳母가 六淫, 七情,飮食,起居失宜하여 아이에게 이런 病이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潮熱이 있으면 먼저 補肝 後에 瀉心하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 망령되어 硝黃 등의 藥을 使用하여 利하게 되면 疳을 形成하게 된다.

만약 癖이 있으면 消磨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만약 잘못하여 巴豆,硼砂등으로 下를 시키거나 또는 傷寒에 誤下하게 되면 능히 疳을 形成할 수 있다.

대저 이것은 모두가 大病으로 脾胃를 虧損시켜 內에 亡津液한 所致이니 脾胃를 固하는 것을 爲主로 하여 일찍 治療하면 敗證으로 변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② 薛氏說

哺食을 너무 빨리 하거나 또는 肥甘한 飮食을 좋아하거나 또는 峻厲한 藥을 服用하여 津液을 많이 傷해서 虛火가 熾盛하거나 또는 稟賦하거나 또는 乳母가 厚味를 먹거나 七情으로 因해서 있게 되니 각각 內를 調治하는 것이 마땅하다.

5) 幼幼集成[33)]

① 疳症의 病源을 硏究하여 보면 脾胃로부터 緣由하지 않은 것이 없다. 대개 胃는 水穀之海로 水穀의精氣는 榮氣가 되고 悍氣는 衛氣가 된다. 榮衛氣가 豊盈하면 諸臟에 灌溉하여 무릇 人身의 皮毛를 充實하게 한다. 肥腠理하는 것은 氣이고 潤皮膚하고 美顔色하는 것은 血이니 所以 平素에 水穀을 잘 取하면 無病이요 水穀을 取함이 減少하면 病이 되고 水去穀하면 亡하니 死한다. 무릇 疳病으로 形不充하면 氣衰이고 色不華하면 血弱이니 氣衰血弱하면 그脾胃가 必히 傷함을 알아야 한다.

② 幼兒가 少乳食하고 腸胃未堅한데 飮食物을 일찍 섭취하여 眞氣를 損傷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甘肥한 飮食物

을 過食하여 積滯가 되어 日久하면 面黃하고 肌削하게 된다.

③ 乳母가 寒熱不調하거나 喜怒와 房勞 후에 젖을 먹여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二三歲後에 穀肉菓菜를 放恣히 섭취하여 飮啖이 中焦에 머물러 飮食物이 오래되어 積을 이루고 그 積이 오래되어 疳을 이룬다.

④ 또한 積을 太過하게 治하여 胃氣를 耗損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或은 大病後에 吐瀉瘧痢하고 乳食이 減少하여 脾胃가 失養하여 이루어지는 二者는 비록 그 原因은 不同하나 모두가 虛로 歸結된다

⑤ 寒症은 溫으로써 治하고 熱症은 凉으로써 治하는 것이 用藥하는 常法이다. 그러나 疳病은 모두가 虛의 所致이니 卽 熱者는 虛中之熱이요 寒者는 虛中之寒이며 積者는 또한 虛中之積이니 故로 積을 治할 때 驟攻하는 것이 不可하고 寒症을 治할 때 峻溫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熱症을 治함에 凉한 藥物을 過度하게 사용하는 것은 不可하다.

⑥ 모름지기 積은 疳의 母로 治疳할 때는 必히 먼저 去積해야 하나 極히 虛한 者는 지나치게 攻下하면 積은 없어지지 않고 疳症이 危殆하니 故로 壯實한 者는 먼저 祛積하고 以後에 胃氣를 扶養하고 衰한 者는 먼저 胃氣를 도와주고 以後에 消積한다.

⑦ 書曰 장차 積이 없어져도 虛症은 남아있는 것이니 虛가 積의 本이요 積은 도리어 虛의 標가 됨을 알 수 있다.

6). 小兒科秘方說[7]

脾胃가 虛弱하고 血氣가 不足하며 乳食太過하고 肥甘한 음식물을 不節하거나 或은 泄瀉後에 內無津液한 所致이니라.

7). 小兒醫方[8]

처음에 脾胃虛弱으로 因하여 血氣不足하고 乳食太過하고 肥甘한 음식물을 節制하지 못하고 肥甘한 飮食物을 節制하지 못하거나 或은吐瀉의 後에 內部의 津液이 없어진 때문이다.

3. 疳의 症狀및 分類

1). 小兒藥證直結[30]

① 疳의 內症은 目腫 腹脹하고 利色은 無常하며 或은 靑白색의 泡沫狀을 띠며 漸次로 痩弱하니 이는 冷症이다.

② 疳의 外症은 鼻下赤爛하고 目燥하며 鼻頭上에 瘡이 있으나 痂를 형성하지는 않고 漸次로 耳를 둘러싸며 生瘡한다. 鼻瘡爛은 蘭香散으로 治하고 諸瘡은 白粉散으로 主한다.

③ 肝疳은 白膜이 睛을 侵犯하니 補肝하여야 하니 地黃圓으로 主한다.

④ 心疳은 面黃頰赤하고 身壯熱하니 補心하여야 하니 安神圓으로 主한다.

⑤ 脾疳은 体黃腹大하고 食泥土하니 當補脾하여야 하니 益黃散으로 主한다.

⑥ 肺疳은 氣喘하고 口鼻生瘡하니 當補脾肺하여야 하니 益黃散으로 主한다.

⑦ 腎疳은 極瘦하고 身에 瘡疥가 있으니 當補腎하여야 하므로 地黃圓으로 主한다.

⑧ 筋疳은 瀉血而瘦하니 마땅히 補肝하여야하니 地黃圓으로 主한다.

⑨ 骨疳은 喜臥冷地하니 마땅히 補腎하여야하니 地黃圓으로 主한다.

⑩ 또한 肥疳이 있으니 즉 脾疳이다. 身

瘦黃하고 皮乾하며 有瘡疥하니 그 症候가 일정하지 않다. 종류가 다양하나 今에 그 綱紀를 要約하면 目澁하거나 或은 白膜이 生하고 脣赤하며 身黃乾하거나 或黑하며 喜臥冷地하고 或은 泥土를 먹는다. 腎에 有瘡疥하여 靑白黃沫을 瀉하고 水利色變하고 腹滿하기 쉽고 身耳鼻모두에 瘡이 生하고 毛髮이 穗와 같고 頭大項細하여 極瘦하고 飮水하니 모두가 그 症候이다.

⑪ 大抵 疳病은 마땅히 冷熱肥瘦를 分別해야하니 其初病者는 肥하니 熱疳이 되고, 久病者는 瘦하니 冷疳이 된다.21) 冷者는 木香元으로 熱者는 黃連圓으로 主한다. 冷熱之疳은 또한 堅圓과 같으나 小兒의 臟腑는 柔弱하여 痛擊하는 것이 不可하니 大下하면 必히 亡津液하여 疳을 이룬다. 무릇下하여야 할 때 大小虛實을 헤아려 下하면 疳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初病에 津液이 少한 者는 마땅히 胃中津液을 生해 주어야 하니 白朮散으로 主한다.

2). 活幼心書[32)]

小兒疳症은 다섯 가지로 命名하니 肝心肝脾肺腎 이다.

尊氏曰

① 肝疳:眵를 生하고 髮傑와 左瞼에 靑色이 많고 或은 白睛이 微黃하며 瀉痢에 夾水하고 或은 苔色과 같다.

② 心疳:咬牙하고 舌을 舒張하고 飮冷水하기를 좋아하고 땅에 엎드려 자기를 좋아한다.

③ 脾疳:冷物먹기를 좋아하고 引飮無度하며 身面이 모두 黃色이고 毛髮이 稀薄하고 穗와 같이 結하고 頭大하고 項小하며 腹部는 脹滿하고 脚弱하며 或은 瀉한다. 肌膚는 瘦瘠하고 目慢하며 晝涼夜熱하고 不思乳食한다.

④ 肺疳:鼻下部가 赤爛하고 手足이 枯細하며 口에 腥臭가 나고 右腮部가 珖白하다.

⑤ 腎疳:兩耳內外에 瘡이 생기고 脚部가 鶴膝과 같고 頭縫이 不合하거나 或은 能히 行하지 못하고 牙齒가 늦게 生하고 그 縫에서 臭爛하고 傳하여 走馬疳의 類가 될 수 있다.

3). 東醫寶鑑[10,11)]

① 머리의 皮膚가 번질번질하면서 膨膨하고 머리털이 까슬까슬하면서 성글며 뺨에 주름이 지고 코가 마르며 입맛이 심심해지고 입술이 희고 두 눈이 침침해지며 짓무르며 코를 문지르고 눈을 비빈다. 또는 등뼈들이 나타나고 몸이 무거우며 손톱을 뜯고 이를 갈며 입 안이 타면서 목이 마른다. 또한 저절로 땀이 나고 오줌이 희며 泄瀉를 하는데 시큼한 냄새가 나고 배가 불러 오르고 끓으며 癖이 생긴다. 그리고 潮熱이 나고 或 몸에 가려운 헌 데가 많이 생긴다. 또 오이와 과실 시고 짠것과 숯 생쌀 진흙 등을 즐겨 먹으려 하고 물을 많이 마신다.

② 疳乾 疳渴 疳癆 疳瀉 疳痢 疳腫 등은 5疳에서 危重한 症狀이다. 蛔疳 腦疳 脊疳 無辜疳 丁奚疳,哺露疳등도 五疳에서 다 죽을 수 있는 證인데 그 原因은 五臟이 다 병들었기 때문이다. (入門)

③ 疳病은 반드시 춥고 열이 나는 것과 살찌고 여윈 것을 鑑別해야 한다. 처음 病이 생겼을 때는 살찌고 열이 있는 疳病이며 오래된 病은 여위고 추

운 症이 있는 疳病이다. 추워하거나 熱이 나는 것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은 冷熱疳이다. 그러므로 鑑別하여 治療해야 한다.(錢乙)

대개 어린이의 大便빛이 희고 오줌이 흐려서 쌀 씻은 물 같은 것(如米甘)은 疳病이다.<回春>

④ 五臟疳[3]

㉠ 肝疳:머리를 흔들고 눈을 비비며 흰 막이 눈동자를 가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살빛이 푸르고 머리칼이 일어서고 배에 푸른 핏줄이 나타나며 뱃속에 積聚가 있고 泄瀉와 痢疾에 자주 나며 或은 밤눈증 雀目으로 잘 보지 못한다.

肝疳때에 눈이 푸르고 왼쪽 옆구리 아래가 뜬뜬하며 흔히 거품 침을 토하고 눈두덩이 검은 것은 잘 治療가 되지 않는다.

㉡ 心疳:온 몸에 심한 熱이 나며 때없이 吐하고 泄瀉하며 뺨이 붉고 얼굴이 누르며 입안과 혀가 헐고 痢疾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므로 피고름을 많이 누고 때로 까닭없이 놀라기도 하고 한다. 또는 心疳은 驚疳이라고도 하는데 울기를 잘하고 늘 물을 먹는다.

心疳때에 귓바퀴에 푸른 핏줄이 있고 혀가 타서 검은 점이 있으면 잘 治療되지 않는다.

㉢ 脾疳:배에 푸른 줄이 많고 젖과 飮食을 많이 먹지 못하며 명치 아래와 배가 脹滿하고 얼굴이 누르스름하고 여위어 뼈만 남으며 머리털에 윤기가 없고 까실까실하며 젖과 飮食이 消化되지 않으며 흙 먹기를 좋아하고 泄瀉를 하는데 시큼한 냄새가 난다. 또는 脾疳은 食疳이라고도 하는데 얼굴빛이 누렇고 배가 크며 흙 먹기를 좋아하고 몸에 헌데가 난다.

脾疳때에 배가 크고 푸른 핏줄이 서며 입술과 입에 핏기가 없고 人中이 펀펀하며 痢疾이지 않는 것은 잘 治療되지 않는다.

㉣ 肺疳:기침하고 氣가 치밀며 皮膚와 털이 마르고 潤氣가 없으며 코를 비비고 손톱을 깨물며 熱이 심하게 나면서 惡寒이 나고 입과 코가 헐고 泄瀉를 자주 하는데 밥알이 그대로 섞여 나오고 피부에 좁쌀알 같은 것이 돋는다. 또한 肺疳은 氣疳이라고 하는데 기침하고 숨이 차고 입과 코에 헌데가 난다.

肺疳때에 기침이 나고 숨결이 급하며 물 같은 泄瀉를 하고 몸에 검은 點이 있는 것은 잘 治療되지 않는다.

㉤ 腎疳:살이 여위고 잇몸이 헐며 때때로 추웠다. 열이 났다 하고 머리가 불덩어리처럼 덥고 다리는 얼음장같이 차며 젖이나 음식은 적게 먹고 설사와 이질이 자주 난다. 또는 腎疳은 急疳이라고도 한다. 五疳 가운데서 腎疳이 가장 急한데 즉 走馬牙疳이다. 또는 骨疳이라고도 하는데 찬 땅에 눕기를 좋아한다.

사람을 傷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腎이 虛해서 病邪를 받아 疳疾이 되면 上焦에 빨리 올라가 走馬疳이 생긴다. 走馬疳 初起에는 입에서 냄새가 나다가 점차 이가 거매지고 잇몸이 傷해 헤지며 더운 피가 나온다. 甚하면 이가 빠진다. 이때 急히 治療하면 이가 제대로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오지 못한다.(得效)

腎疳때에 짠 것과 식초를 즐겨 먹고 물을 계속 켜며 오줌이 쌀 씻은 물 같고 이가 검으며 헌데가 나고 여위어서 뼈가 드러나며 귀에 윤기가 없고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면 잘 治療되지 않는다.(綱目)

만일 五乾證이 다 나타나고 몸에 좁쌀 같은 것이 돋으며 검은 斑疹이 있으면 죽을 수 있다.(入門)

⑤ 熱疳

疳病이 시작할 때에 볼이 붉고 입술이 타며 潮熱이 나서 불덩이 같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熱疳인데 胡黃連丸을 쓰는 것이 좋다.(入門)

熱感으로 몸이 누르고 여위며 밤눈증으로 物件을 잘 보지 못하며 혹 헌데가 나는 데는 五福化毒丹 局方龍膽元을 쓰는 것이 좋다. (入門)

⑥ 冷疳

疳病이 오래되면 눈이 붓고 얼굴이 거무스름하며 배가 脹滿하고 泄瀉하는데 大便빛이 혹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곱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은 冷疳인데 至聖丸을 쓰는 것이 좋다.(入門)

冷疳은 渴症이 많고 찬 땅에 눕기를 좋아하며 煩躁해 하고 소리내어 울며 泄瀉를 하여 점차 여위게 된다. 이런 데는 木香丸,使君子丸을 쓰는 것이 좋다. 疳病이 있어서 눈이 붓고 배가 脹滿하며 痢疾로 大便빛이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한 것이 일정치 않으며 점차 몸이 여위고 약해지는 것은 冷症이다.(錢乙)

⑦ 冷熱疳

冷疳症狀과 熱疳症狀이 둘 다 섞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새것도 오랜 것도 아닌데 積을 삭게 하고 胃를 고르게 하며 血을 불쿠어 주고 氣를 고르게 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如聖丸을 쓴다.(錢乙)

⑧ 蛔疳

젖이 없어서 죽과 밥 고기 등을 너무 일찍 먹이기 시작했거나 단것이나 기름진 것을 많이 먹여 蛔蟲이 생겨서 되는데 몹시 울며 느침(涎) 을 토하고 배가 아프며 입술은 자줏빛이다. 蛔蟲이 비록 맛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動하게 해서는 안된다. 動하여 그것이 입과 코로 나오면 治療하기 어렵다.대체로 疳積이 오래되면 蛔蟲이 없는 것이 없으므로 下蟲丸을 먹이는 것이 좋다.(入門)

⑨ 腦疳

腦疳은 코가 가렵고 머리털이 까슬까슬해지고 얼굴이 누루고 몸이 여윈다(聖惠)

머리의 皮膚가 반질반질하고 머리털이 까슬까슬하게 되며 혹 머리에 생긴 헌데가 퍼져서 숫구멍까지 부으며 숫구멍이 부으면 흔히 눈을 傷하고 목에 힘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며 살이 찌면서 여위지 않는다. 이때는 附子와 天南星을 가루 내어 生薑汁으로 개어 앓는 곳에 붙인다. 또는 붕어 담즙을 3-5일 동안 콧구멍에 떨구어 넣으면 效果가 난다.(湯氏)

腦疳으로 온 머리에 餠瘡이 생기고 머리가 불같이 더우며 숫구멍이 부어오르고 온몸에 땀이 많이 나는 데는 龍膽丸을 쓰는 것이 좋다.(入門)

⑩ 脊疳

어린이의 疳積으로 점차 누렇게 여위어지며 잔등을 치면 북소리가 나고 등뼈가 톱날같이 드러나는 데는 蘆薈丸, 露星膏를 먹이는 것이 좋다(湯氏)

脊疳은 벌레가 脊椎를 파먹어서 등뼈가 앙상하여 톱날같이 되고 잔등을 치면 북소리가 나며 열 손가락 등쪽에 헌데가 나고 자주 손톱을 깨물며

煩熱이 나고 누렇게 여위며 泄瀉한다. 이런데는 蘆薈丸을 쓰는 것이 좋다.(入門)

⑪ 走馬疳

腎疳또는 急疳이라고도 한다. 흔히 마비를 앓은 뒤에 餘毒이 있는 데다 또 젖과 음식을 잘 調節해 먹이지 못하여 단맛이 脾에 들어가 벌레가 생겨서 위로 잇몸을 파먹으면 입이 헐어 피가 나오고 냄새가 나며 심하면 이뿌리가 헤어지고 문드러져서 이가 거매지면서 빠지며 볼이 구멍이 뚫리는 것을 走馬疳이라 한다. 이것은 陽明의 熱氣가 말이 달아나듯이 위로 빨리 올라가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 腸胃를 파먹으면 泄瀉와 痢疾이 생기고 肛門이 짓무르는데 그 症狀은 머리가 덥고 살이 빠지며 손발이 얼음장같으며 손톱이 검고 얼굴이 거무스름하며 이 병이 甚하면 목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이런 때에는 腎氣丸에 使君子와 멀구슬 나무열매(苦練實)을 더 넣어 쓰는 것이 좋다.(入門)

⑫ 無辜疳

無辜疳의 症狀은 얼굴이 누르고 머리털이 곧추 서고 때때로 熱이 甚하며 飮食을 먹어도 살찌지 않고 여러 해 지나면 죽게 된다. 하늘에 無辜라는 새가 있어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면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옷이나 포대기를 빨아서 밖에 널어 밤이 지나도록 널어놓았을 때 혹은 이 새가 날아가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더럽힌 것을 아이에게 입히거나 덮어주면 이 병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또는 뒷머리에 멍울이 있는데 갓 생겼을 때에 터뜨리지 않으면 熱氣가 점점 많아지고 벌레는 氣血을 따라 흩어져서 五臟六腑를 파먹으며 살에 헌데가 나거나 대변은 泄하는데 피고름이 섞여 나오고 점차 누렇게 여위며 머리는 크고 머리털은 곧추서며 손발은 가늘어지고 약해진다. 이때는 月蟾丸,十全丹.二連丸을 쓰는 것이 좋다.

⑬ 丁奚疳

丁奚疳이란 것은 배가 크고 목이 가늘며 누렇게 여위는 것이다. 丁이란 손발과 목이 아주 가늘고 힘없이 홀로 걷는 모양이고 奚라는 것은 배가 큰 것이다. 甚한 것은 살이 빠져 꽁무니뼈가 드러나고 배꼽이 두드러 올라오고 가슴이 그득하며 혹 음식으로 癥癖이 생기며 생쌀이나 흙이나 숯 등을 먹기를 좋아한다. 이런 때에는 十全丹.布袋丸을 먹는 것이 좋다(綱目).

⑭ 哺露疳

虛熱이 있었다 없었다하고 머리뼈가 아물지 않고 먹은 것을 도로 吐하고 벌레를 吐하며 煩渴이 나고 구역질과 딸꾹질을 하며 여위어 뼈가 드러난다. 대개 丁奚疳이나 哺露疳은 모두 脾胃가 오랫동안 虛한 데로부터 몸이 여위어 가는 것이다.또는 선천적으로 體質이 虛弱하여 되는 것도 있다. 이것은 다 無辜疳 種類인데 治療하기 어려우며 대체로 비슷하다. 이때는 十全丹 布袋丸을 쓰는 것이 좋다.(入門)

⑮ 併發疾患

㉠ 疳渴:疳病이 낮에는 煩渴이 나서 물을 켜고 젖과 飮食을 잘 먹지 않으며 밤이 되면 渴症이 없어진다. 이때는 連膽丸이

좋다.

疳渴에 물을 계속 마시고 혀가 검은 것은 죽을 수 있다.

㉡ 疳痢:뼈가 찌는 것 같고 潮熱이 나며 식은땀이 나고 기침하며 泄瀉하고 배가 돌같이 뜬뜬하며 얼굴이 은빛같이 흰 것은 잘 治療되지 않는다. 連膽丸에 두꺼비 태운 가루를 더 넣어 쓰는 것이 좋다.(入門)

疳痢때에 숨이 몹시 찬 것은 죽을 수 있다.

㉢ 疳瀉:몸이 여위고 얼굴이 누르며 헌데가 나고 或 진흙을 먹으며 설사하는데 푸르면서 희고 누런 거품 같은 것을 누거나 혹 곱 같은 것이나 진흙 풀어진 것 같은 것을 泄瀉라 한다. 이때는 至聖丸을 쓰는 것이 좋다.(入門)

만일 疳痢 疳瀉 등으로 얼굴이 마르고 윤기가 없으며 뼈가 드러나고 이 사이가 벌어지며 배가 뜬뜬하고 밥을 먹지 못하면 다 위태로운 症狀이다. (得效)

㉣ 疳痢:疳病이 속에 있으면 눈두덩이 붓고 배가 불러 오르며 이질빛이 일정하지 않다.(錢乙)

疳痢로 大便빛이 누르고 희거나 5가지 빛이 보이는 泄瀉를 때없이 하며 점점 몸이 더 여위어 가는 데는 使君子丸,木香丸을 쓰는 것이 좋다.

疳瀉와 疳痢때에 肛門이 나오고 딸꾹질하는 것은 治療되지 않는다.(入門)

㉤ 疳腫:어린이의 疳病으로 虛해진 데나 積이 있어 몸과 얼굴이 붓고 배가 脹滿한데는 肥兒丸이 좋고 몹시 脹滿한데는 褐丸子를 쓰는 것이 좋다.

㉥ 疳瘡:脾疳,腎疳은 모두 몸에 진옴(瘡疥)이 나고 無辜疳은 벌레의 毒이 흩어져서 살에 헌데가 나며 肺疳은 코밑에 헌데가 생긴다.

疳病으로 온몸에 헌데가 생기는 것은 벌레가 피부를 파먹기 때문이다. 이때는 蘆薈丸,月蟾丸,化蠶丸,豬肚黃蓮丸,玉蟾丸,疳瘡에 씻는 약 등을 쓰는 것이 좋다.(入門)

4). 景岳全書[2,28]

① 錢仲陽說

대저 疳이 內에 있으면 目腫,腹脹,瀉痢靑白,體漸瘦弱하고 疳이 外에 있으면 鼻下赤爛하고 頻揉鼻耳 또는 肢體生瘡하게 되는데 대저 그 證이 비록 많아도 要點은 五臟을 벗어날 수 없으니 五臟의 疳은 不同하니 각각 구별하여 治療하는 것이 마땅하다.

㉠ 肝疳:筋疳 또는 風疳이라고도 하는데 症狀은 白膜遮睛 或 瀉血而瘦하니 地黃丸으로 腎을 生하는 것이 마땅하다.

㉡ 心疳:面黃,頰赤,身體壯熱하니 硃安神丸으로 心을 治療하고 異功散으로 補脾한다.

㉢ 脾疳:肥疳이라고도 하는데 體黃,瘦削,皮膚乾澁,有瘡疥,腹大,嗜土하니 四味肥兒丸으로 疳을 治療하고 五味異功散으로 生土하는데 或은 益黃散을 使用한다.

㉣ 肺疳:氣疳이라고도 하는데 喘嗽,氣促,口鼻生瘡하니 人蔘淸肺湯으로 肺를 治療하고 益氣湯으로 金을 生한다.

㉤ 腎疳:骨疳이라고도 하는데 肢體瘦削,遍身瘡疥,喜臥濕地하니 地黃丸을 사용하며 鼻瘡에는 蘭香散을 使用하며 諸瘡에는 白粉散을 使用한다.

② 樣氏說

㉠ 無辜疳:腦後의 項邊에 彈丸만한 核이 있어 누르면 轉動하고 軟하면서 아프지는 않으니 이것은 內에 蟲이 있으니 急

히 鍼으로 出하게 하지 않으면 안으로 臟腑를 侵蝕하고 肢體癱疽,便利膿血,壯熱羸瘦,頭露骨高하니 大蕪荑湯,蟾蜍丸이 마땅하다.

㉡ 丁奚疳:手足이 매우 가늘고 項小骨高,尻削體瘦,腹大臍突,號哭,胸陷하니 肥兒丸,大蘆薈丸이 마땅하다.

㉢ 哺露疳:虛熱往來,頭骨分開,翻食吐虫,煩渴,嘔噦하니 肥兒丸,大蘆薈丸이 마땅하다.

㉣ 走馬疳:牙齒蝕爛하는데 대저 이빨은 腎에 속하니 腎虛한데 熱을 受하여 痰火가 上炎하여 口臭하고 齒黑하고 심하면 齦爛牙宣하니 雄黃散을 붙이고 蟾蜍丸을 服用하는 것이 마땅하다.

㉤ 虫疳: 虫이 絲와 같고 頭項腹背의 사이에서 出하는데 黃白赤色이면 治療가 可能하나 靑黑이면 難治이다.

㉥ 蛔疳: 皺眉,多啼,嘔吐靑沫,腹中作痛,肚脹靑筋,脣口紫黑,頭搖齒痒한다.

㉦ 脊疳: 身熱,羸黃,煩渴,下痢,拍背有聲,脊骨如鋸齒,十指皆瘡,頻齒指甲한다.

㉧ 腦疳:頭皮光急,滿頭幷瘡,腦熱如火,髮枯如穗,遍身多汗,腮腫顴高한다.

㉨ 疳渴:日則煩渴,飮水不食,夜則渴止한다.

㉩ 疳瀉:毛焦脣白,額上靑紋,肚脹,腸鳴,瀉下糟粕한다.

㉪ 疳利:停積宿滯,水穀不聚,瀉下惡物한다.

㉫ 疳腫:虛中有積,肚腹緊張하는데 脾가 다시 濕을 受하면 頭面手足이 虛浮한다.

㉬ 疳勞:潮熱往來,五心煩熱,盜汗,骨蒸,嗽喘枯悴 渴瀉飮水,肚硬如石,面色如銀한다.

③ 薛氏說.

㉠ 心經內外疳:口舌蝕爛 身體壯熱 腮脣赤色하거나 또는 腫痛 胸膈煩悶하거나 또는 掌熱 咽乾 作渴飮水 小便赤 盜汗 嚙齒 虛驚한다. 安神丸의 종류로 主하는 것이 마땅하다.

㉡ 肝經內外疳:鼻外生瘡 眼目赤爛 肢體似癬 兩耳前後項側 缺盆兩腋結核하거나 또는 小腹 內股 玉莖 陰囊 睾丸이 腫潰하고 小便不調하거나 또는 白液이 나오거나 또는 咬指甲 搖頭側目 白膜遮睛 羞明畏目 肚大靑筋 口乾 下血한다. 地黃丸 蘆薈丸으로 主한다.

㉢ 脾經內外疳:머리카락이 나지 않거나 또는 瘡痂가 생기거나 또는 머리카락이 穗처럼 되거나 또는 人中과 口吻이 赤爛하고 腹痛 吐逆 乳食不化 口乾嗜土 瀉下酸臭 小便白濁하거나 또는 合目昏睡 惡聞木音한다. 肥兒丸으로 主한다.

㉣ 肺經內外疳:鼻外生瘡 咽喉不利 頸腫齒痛 咳嗽寒熱 皮膚皺錯 欠伸少氣 鼻痒出涕 衄血目黃 小便頻數한다. 地黃淸肺飮으로 主한다.

㉤ 腎經內外疳:腦熱吐痰 手足逆冷 寒熱往來 滑泄肚痛 口臭作渴 齒斷潰爛 瓜黑面黎 身耳生瘡하거나 또는 耳出水 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먹거나 한다. 地黃丸으로 主한다.

㉥ 走馬疳: 疳熱이 上攻하거나 또는 痘毒이 상승하면 病이 매우 빠르다. 急히 雄黃散,搽牙散,馬鳴散중에서 選擇하여 붙이고 蟾蜍丸을 服用하는데 가벼우면 牙齦腐爛,脣吻腫痛하니 可治이고 甚하면 牙斷蝕落,腮頰透爛하니 不治라고 하였다.

5). 幼幼集成[33]

① 頭皮가 光急하고 毛髮이 焦稀하고 뺨이 마르고 鼻가 乾燥해지며 口饞하고 입술이 하얗게 되며 兩眼혼란하며 糜爛된다. 눈썹 문지르고 코를 비비며 허리가 숫으며 身色이 누렇고 이빨을 부딪치며 손톱을 물어뜯으며 渴症을 느끼고 自汗하며 小便이 白色이 되고

시큼한 泄瀉를 하고 肚腹이 脹滿하고 腸鳴이 있으며 癖結하고 潮熱이 發한다. 瓜菓와 鹹炭및 水泥를 좋아하는 者는 모두 그 症候이다.

② 만약 惡食하고 滑瀉하게 되며 乳食이 直下하고 牙齦이 黑색으로 糜爛되고 頭項이 軟弱하여 꺾이며 四肢가 厥冷하고 下痢하며 腫脹하고 面色이 銀과 같고 肚腹이 石과 같이 굳으며 肌肉이 靑黑色을 띄며 肛門이 筒과 같고 黑血을 嘔吐하며 蛔蟲을 吐利하면 不治證이 된다.

③ 五臟疳

㉠ 心疳:咬牙舒舌하고 舌上生瘡하며 愛飮冷水하고 脣紅面白하며 喜伏地臥한다.

㉡ 肝疳:面靑하고 目生白膜하며 泄瀉에 夾水하거나 또는 便이 靑色을 띈다.

㉢ 脾疳:愛食泥土하고 冷物을 攝取가 無度하며 身面이 모두 黃色을 띄며 毛髮이 稀薄하여 結하여 이삭과 같으며 頭는 크고 項은 가늘고 肚腹이 脹滿하고 脚弱하며 間或 泄瀉하거나 肌瘦하며 晝에는 凉하며 夜에는 熱하고 乳食을 하려하지 않는다.

㉣ 肺疳:鼻下가 赤爛하고 手足이 枯細하고 口中에서 腥臭가 나며 或은 喘嗽를 發하며 右腮가 晃白하다.

㉤ 腎疳:兩耳內外에 瘡을 生하며 脚이 鶴膝과 같으며 頭縫이 不合하고 或은 齒縫에서 냄새가 나고 糜爛되는데 變하여 走馬疳을 이룬다.

④ 泄瀉가 오래 동안 그치지 않아서 胃虛하여 疳을 이룬 것을 疳瀉라 한다.

⑤ 痢疾이 오래 동안 그치지 않아서 胃虛하여 疳을 이룬 것을 疳痢라 한다.

⑥ 瘡疾 낫지 않아서 胃虛하여 疳을 이루는데 이것은 반듯이 癖이 있으니 疳瘡이라 한다.

⑦ 腦疳:皮毛가 光急하고 滿頭瘡餠하며 腦熱하기가 火와 같고 髮結하여 이삭과 같고 遍身에 多汗하고 腮부가 浮腫하고 顴가 올라오며 小兒로 하여금 眼痛하게 한다.

⑧ 脊疳:蟲이 脊膂을 食하여 發熱하고 黃色이며 마르고 積中에서 熱을 發하고 煩渴하고 下痢한다. 背를 두드리며 북소리가 나며 脊骨이 톱질소리와 같고 或은 十指가 모두 瘡이 生하며 指甲을 자주 물어뜯는다.

⑨ 蛔疳: 皺眉하고 多哭하며 淸沫을 嘔吐하고 腹中에 痛을 발한다. 痛이 發할 時는 腹中에 聚結하여 塊를 이루고 문지르면 몽둥이처럼 일어나고 肚腹이 膨滿하고 靑筋이 露出하며 脣口가 紫黑色을 띄며 腸頭嚙癢하는 것이 蛔疳이다.

⑩ 丁奚疳:手足이 매우 가늘고 項이 가늘고 骨이 隆起하며 尻削하고 體瘦하며 腹大臍突하고 號叫胸陷한 것이 그것이다.

⑪ 哺露疳:虛熱이 往來하고 頭骨이 分開하며 飮食物과 蟲을 嘔吐하며 煩燥嘔噦하는 것이 그것이다.

⑫ 無辜疳:小兒의 옷을 夜間에 路上에 두어 無辜鳥의 毛가 떨어져 汚染된 것을 小兒가 입어서 身體發熱하고 나날이 黃瘦 해지며 腦後의 項邊에 彈丸같은 結核이 생기는데 按之하며 따라서 移動하고 軟하여 不痛하는데 그 가운데 米粉과 같은 蟲이 있다.

⑬ 疳熱:胃脾虛弱으로 陽이 外로 浮하고 氣가 歸元하지 못하니 只補脾를 爲主하여 陽氣로 하여금 收斂하게 하면 熱이 스스로 물러난다.

⑭ 疳渴:胃氣가 下陷하여 津液이 生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補胃하여 淸陽으로 하여금 上升하게 하면 津液이 점차 生하여 渴症이 스스로 멈춘다.

⑮ 走馬疳:蟲病이다. 齒는 腎에 屬하고 腎은 虛를 主한다. 熱邪를 받아 上焦로 直奔하면 初起에는 口臭가 나니 臭息라 한다. 또 齒黑한 것을 崩砂라 하고 甚하여 齒齦이 糜爛하면 潰漕라한다. 出血이 있으면 宣露라하고 심하면 齒가 모두 脫落하는 것을 腐根이라 하니 回復이 되어도 齒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 外證은 腦熱하고 肌瘦하며 手足이 氷과 같으며 寒熱이 때때로 發하고 滑泄하고 肚痛하며 口臭가 나고 乾渴하며 齒齦이 破爛되고 爪甲이 黧黑하고 身에 瘡疥가 多發한다. 痘疹以後에 此證이 多發하니 治療하여 救하지 못하니 毒氣가 腎에 歸하기 때문이다.

6). 小兒科秘方說[7]

① 腎疳: 四肢가 瘦削하고 面黃하며 肚大하고 身에 瘡癤을 生하며 때때로 寒熱을 作하며 夜間에 死物이 보이지 않는다.

② 熱疳: 全身黃瘦 夜不見(雀目) 或은 牙床腫臭出血(잇몸이 붓고 냄새가 나며 피가 흐르는 것) 身上生瘡等症을 呈한다.

7). 小兒醫方[8]

① 肌瘦하고 腹脹하며 貪食하고 大便頻數한다.

② 腎疳: 四肢가 瘦削하며 面黃하고 肚大하고 身에 瘡癤을 生하고 寒熱이 때때로 作하고 雀目하여 夜間에 死物을 보지 못하며 漸次로 腎疳을 이룬다.

③ 熱疳: 黃瘦하고 雀目하여 夜間에 不見物하고 或 잇몸이 붓고 出血이 되며 身에 瘡이 生한다.

III. 考察

疳症은 小兒가 營養이 적당하지 못하거나 或은 各種 疾病의 影響으로 脾胃가 損傷되어 傳化가 失調되고 臟腑가 營養을 받지 못하여 形體가 虛弱하고 面黃하며 羸瘦해지는 病症으로 小兒科 四大 要證인 痧 痘, 驚, 疳 (卽痲疹, 天花, 驚風, 疳症)의 하나이며 小兒科에서는 비교적 發病率이 높은 慢性 消耗性 疾患이다.[4,5,16,26,35]

疳症의 疳은 두 가지 意味를 含有한다. 첫째로 <醫學正傳 諸疳說>[24,26]에서 "대개 그 病은 肥甘으로 인한 所致이니 疳이라 名한다"고했듯이 肥甘厚味를 過食하여서 脾胃를 損傷하여 疳을 이루게 된 까닭으로 "疳者甘也"라 하였다. 이는 病因에 따른 疳의 意味를 言及한 것이다. 둘째로 그 病機에 따라 "疳者乾也"[25]라 했으니 <保嬰撮要 諸疳症>에서 "대개 疳은 乾이니 脾胃津液이 乾涸해진 疾患이다"라 했다. <幼科鐵鏡 辨疳疾>에서 "疳은 乾而瘦也"라 했는데 이는 臨床的인 主要 症狀이 形體가 마르고 羸瘦해지는 것을 表現한 것이다.[16,18,26]

<素問 奇病論>[34,36]말하기를 "數食肥하면 令人內熱하고 數食甘하면 令人中滿하게 한다." 하여 肥甘한 飮食物의 過度한 攝取로 疾病이 誘發될 수 있음을 말하였으나 疳症에 關하여 처음으로 言及된 곳은 隋代에 巢元方의 <諸病原候論 虛勞骨

蒸候>[19,29]에서 시작된다. 말하기를 "蒸盛하여 過傷하면 內에서 變하여 疳이 되니 五臟을 蝕한다"하고 "久蒸이 不除하면 多變하여 疳을 이룬다"하여 疳이 內傷에 의한 慢性疾患이며 五臟에 病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하였다. 唐代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 券十五>[20]에서 "무릇 下痢가 一月이 되어도 낫지 않으면 疳이 된다 " 하여 久瀉가 疳을 이룰 수 있는 臨床經驗을 言及하였다. 宋代의 <太平聖惠方>[16]에서는 小兒五疳論을 세우고 五疳에 따른 "可治候"와 "不可治候"에 대하여 言及하였으며 錢乙의 <小兒藥證直結>[30]에서는 五臟을 爲主로한 辨證方法으로 疳症을 肝 心 脾 肺 腎 筋 骨疳의 七類로 分類하고 "疳은 모두 脾胃의 病으로 亡津液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 大病을 앓거나 吐瀉後 또는 吐下法을 誤用하여 脾氣를 損傷해서 脾胃虛弱해지고 津液을 損傷하면 疳症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써 病因 病機에 따른 理論이 確立되었고 이는 後世 醫家에 深遠한 影響을 주었다.[16,18]

<證治準繩 幼科>[37]에서 疳을 六十一候로 列擧하였으며 <醫宗金鑑 幼科心法要結>에서는 十九種으로 疳症을 敍述하였다. <幼幼集成>에서는 "疳病은 모두가 虛症의 所致로 熱한 것은 虛한 中의 熱이요 寒한 것도 虛中의 寒이며 積 또한 虛한 中의 積이라 했다. 또한 積은 疳의 母가 되니 疳을 治하고자 할 때는 먼저 祛積해야 한다"는 것을 重視하였다.[16,18,26]

疳證의 原因에 관하여 丁茶山은 小兒科秘方說[7]에서 "脾胃虛弱하고 血氣不足하며 乳食太過하거나 肥甘不節 或은 泄瀉後에 內無津液의 所致이니라"했고 <幼幼集成>[33]에는 "幼兒가 少乳食하고 腸胃未堅한데 飮食物을 일찍 섭취하여 眞氣를 損傷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甘肥한 飮食物을 過食하여 積滯가 되어 日久하면 面黃하고 肌削하게 된다."하고 "乳母가 寒熱不調하거나 喜怒와 房勞후에 젖을 먹여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二三歲後에 穀肉菓菜를 放恣히 섭취하여 飮啖이 中焦에 머물러 飮食物이 오래되어 積을 이루고 그 積이 오래되어 疳을 이룬다"고 하였다. 또한 "積을 太過하게 治하여 胃氣를 耗損하여 이루어지는 것과 或은 大病後에 吐瀉瘧痢하고 乳食이 減少하여 脾胃가 失養하여 이루어지는 二者는 비록 그 原因은 不同하나 모두가 虛로 歸結된다"하여 疳症은 모두가 虛症의 所致임을 强調하였다.

또한 錢仲陽[2,28]이 말하기를 "小兒의 諸疳은 모두가 病後에 脾胃가 虧損하였거나 또는 用藥을 과도히 하여 傷해서 乳食을 傳化할 수 없어 內로 亡津液하여 虛火가 妄動하거나 또는 乳母가 六淫,七情,飮食,起居失宜하여 아이에게 이런 病이 있게 되는 것이다"하였고 錢乙[30,51]은 "疳證은 모두 脾胃病으로 亡津液하여 發한다. 大病이나 或은 吐瀉後에 藥으로 吐下시켜서 脾胃虛弱을 治하여 亡津液하여 또한 小兒疳病을 이루니 모두가 愚醫가 壞病을 만든 것이다."하여 吐下法의 誤用이 脾胃를 損傷하여 疳症을 誘發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즉 疳症의 原因은 小兒의 腸胃가 未堅한데다 斷乳를 일찍 하고 飮食物을 먹으면 消化하지 못하여 正氣를 耗傷하여 된 것이 있고 둘째는 平素에 肥甘한 飮食物을 많이 먹고 오랫동안 積滯하고 濕熱이 交蒸하여 虫이 생기는 것이 있고 셋째는 看護를 잘 못하고 寒熱不均케 하거나 또는 喜怒 房事後에 哺

乳를 한 것이 있으며 넷째는 吐, 瀉, 瘡, 痢등의 大病後에 또는 病中에 甚하게 過勞하여 津液을 傷하여 脾胃가 損傷을 받기 때문에 發病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18]

疳症의 臨床的 症狀에 관하여 小兒醫方[8]에서는 "肌瘦하고 腹脹하며 貪食하고 大便頻數한다."하였으며 幼幼集成[33]에서 말하기를 "頭皮가 光急하고 毛髮이 焦稀하고 腮縮鼻乾하며 口瘡唇白하고 兩眼이 昏爛하다. 揉眉擦鼻하고 脊聳體黃하며 鬥牙咬甲하고 焦渴自汗한다. 尿白瀉酸하며 肚脹하고 腸鳴이 있으며 癖結潮熱하며 瓜菓鹹炭 水泥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모두가 그 徵候이다"라 하였다. 즉 疳症은 面色萎黃하고 形體가 羸瘦하며 毛髮이 乾枯한 것을 主症으로 하는 慢性 消耗性 疾患인 것이다.

疳症에 관한 分類에 관하여 <聖惠方>[10,11]에서는 "肝疳은 搖頭揉目하고 遍身에 汗이 흐르고 하고 合面而臥하며 面色이 靑黃한다. 髮竝頭焦하고 筋靑이 나타나고 腦熱하며 渾身에 瘡癬생긴다. 腹中에 積聚가 있어 下痢가 頻多하고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轉하여 羸瘦가 甚해진다. 心疳은 渾身이 壯熱하고 吐利가 無常하며 頰部가 赤色이 나타나고 面黃하며 胸膈이 煩滿한다. 鼻乾하고 心躁하며 口舌이 生瘡하며 痢가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膿血이 많아지고 時時로 盜汗하거나 或은 虛驚이 發한다. 脾疳은 腹部에 筋脈이 많고 喘促하며 氣粗하다. 乳食을 많이 하지 못하고 心腹이 脹滿하다. 多啼하고 欬逆하며 面色이 痿黃하다. 骨立毛焦하고 形體가 枯細하고 筋力이 劣弱하다. 胸膈이 壅悶하고 水穀不消하며 口鼻가 恒常 乾燥하고 情意不悅하며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싫어한다. 腸胃가 和하지 못하고 泄利에 酸臭가 많다. 肺疳은 咳嗽 氣逆하고 皮毛가 乾焦하며 饒涕多啼하고 咽喉가 不利하며 搔鼻齕甲하고 壯熱이 發하고 憎寒하며 脣邊이 또한 瘡하다. 腹內가 氣脹하고 乳食이 漸漸 稀薄하고 大腸不調하여 頻頻泄利하고 糞中에 米穀이 出하고 皮膚上에 粟立狀으로 生한다. 腎疳은 肌骨이 消瘦하고 齒齦에 瘡이 생기고 寒熱이 時作하며 口鼻가 乾燥하고 腦熱이 불과 같고 脚冷이 얼음과 같다. 吐逆이 이미 增加하고 乳食은 減少하며 瀉利가 頻發한다. 下部가 開張되고 肛門이 不收하니 疳瘡이 瘡痛한다" 하여 五疳으로 分類하였으며 五臟을 中心으로 한 體系的인 分類가 錢乙[30]에 이르러 이루어져 "肝疳은 白膜이 睛을 侵犯하니 補肝함이 마땅하니 地黃圓으로 主한다. 心疳은 面黃頰赤하고 身壯熱하니 補心함이 마땅하며 安神圓으로 主하며 脾疳은 体黃腹大하고 泥土를 食하니 當補脾하여야 하므로 益黃散으로 主한다. 肺疳은 氣喘하고 口鼻에 瘡이 生하니 마땅히 脾肺를 補하여야 하므로 益黃散으로 主한다. 腎疳은 極瘦하고 身에 瘡疥가 生하니 補腎하여야 하므로 地黃圓으로 主한다. 筋疳은 瀉血而瘦하니 補肝함이 마땅하므로 地黃圓으로 主한다. 骨疳은 冷地에 눕기를 좋아하니 마땅히 補腎하여야 하므로 地黃圓으로 主한다."하여 七疳으로 分類하였다. 그러나 肝疳을 또한 筋疳이라 하고 腎疳을 또한 骨疳이라 하여 결국 疳의 分類는 五臟疳으로 歸結된다. 活幼心書[32]에서도 小兒疳症을 다섯 가지로 命名하니 肝 心 肝 脾 肺 腎 이다. 魯氏가 말하기를 "肝疳은 :胗를 生하고 髮傑와 左瞼에 靑色이 많고 或은 白睛이 微黃하

며 瀉痢에 夾水하고 或은 苔色과 같으며 心疳은 咬牙하고 舌을 舒張하고 飮冷水하기를 좋아하고 땅에 엎드려 자기를 좋아한다. 脾疳은 冷物먹기를 좋아하고 引飮無度하며 身面이 모두 黃色이고 毛髮이 稀薄하고 穗와 같이 結하고 頭大하고 項小하며 腹部는 脹滿하고 脚弱하며 或은 瀉한다. 肌膚는 瘦瘠하고 目慢하며 晝涼夜熱하고 不思乳食한다. 肺疳은 鼻下部가 赤爛하고 手足이 枯細하며 口에 腥臭가 나고 右腮部가 珮白하다. 腎疳은 兩耳內外에 瘡이 생기고 脚部가 鶴膝과 같고 頭縫이 不合하거나 或은 能히 行하지 못하고 牙齒가 늦게 生하고 그 縫에서 臭爛하고 傳하여 走馬疳의 類가 될 수 있다."하였다. 이와 같이 疳의 分類는 五臟을 中心으로 나타나는 臨床的 症候에 따른 分類를 그 基本으로 한다. 以外에 疳傷症으로 分類하여 原因이나 特徵的인 症候에 따라서 分類되는 疳症이 있다.

먼저 病因에 따라서 冷疳 熱疳 冷熱疳 食疳 蛔疳등으로 나눌 수 있으니 冷疳은 <醫學入門>[27]에 "身冷하고 瀉不停하며 疳病이 오래되면 目腫하고 面黧하며 體瘦하고 煩渴하며 多汗한다. 腹部가 脹滿하고 滑瀉無常하고 或靑 或白하거나 或垢膩와 같은 것은 冷疳이 되니 至聖丸이 마땅하다."하고 錢乙은 "冷疳은 多渴하고 冷地에 눕기를 좋아하고 煩燥하며 啼叫하다. 大便이 滑泄하여 漸次 羸瘦하게 되니 木香丸 使君子丸이 마땅하다. 疳症이 內에 있어서 目腫하고 腹脹하며 利色의 靑白이 정상이지 못하고 漸次 瘦弱해지니 冷證이다."하였다.

<醫學入門>[27]에서 "熱疳은 黃瘦하며 雀目이 되어 夜間에 不見物하고 或은 生瘡하니 五福化毒丹이 마땅하다.".라하고 또한 '疳病의 初期에 病人이 瘦怯되지 않고 但只瞼赤하고 口臭가 나고 脣焦하며 煩渴하다. 潮熱이 火氣와 같고 大便이 秘澁한 者는 熱疳이 되니 湖蓮丸이 마땅하다."하였다.

錢乙[30]이 말하기를 "冷熱疳은 冷熱이 서로 섞여 있으며 非新非久하니 消積和胃하며 滋血調氣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如聖丸을 쓴다."하였다 <醫學入門>[27]에서는 "冷熱이 서로 兼하니 泄瀉하거나 大便이 秘澁하다. 或은 時時로 便血하거나 或은 潮蒸한다. 冷熱二證이 交互할 것으로 非新非久하며 不內外因으로 인한 것은 消積和胃하고 滋血調氣하며 淡薄한 飮食을 섭취함이 마땅하며 오래되면 自然히 堅牢해진다."하였는데 이는 疳을 寒熱에 따라 分類한 것이며 이외에 原因에 따른 分類로 蛔疳과 無辜疳이 있다. 蛔疳은 <醫學入門>[27]에서 말하기를 "蛔疳은 乳食을 중단하고 米飯을 먹고 肉食을 너무 빨리 섭취하거나 或은 肥甘한 飮食物을 過多하게 섭취하여 傳化하여 蛔蟲이 되니 多啼하고 涎沫을 吐하고 腹痛이 있고 脣紫한다. 蛔는 食하면 蟲이 도리어 動하지 않고 動하면 口鼻를 따라서 出하여 難治이다. 무릇 疳積이 오래되면 蟲이 되니 下蟲丸을 服用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幼幼集成[33]에서 "蛔疳은 皺眉多哭하고 淸沫을 嘔吐하고 腹中作痛하며 痛이 있을 때는 腹中에 結聚하여 塊를 이루니 문지르면 梗처럼 일어나고 滿肚靑筋하고 脣口가 紫黑色이 되고 腸頭嚙癢者가 그것이다"고 했다. <東醫寶鑑>[10,11,23]에 "無辜疳은 그 증후가 面黃하고 髮直하며 時時로 壯熱이 發하고 飮食이 肌膚를 生하지 못하니 시간이 지나면 死에 이르게 된다. 말하기를 天에는 無辜라는

새가 있어 晝에는 숨어있다가 夜에는 날아다니며 兒家의 빨아 놓은 옷이 露天에 있을 때 或 이 새가 飛하는 것을 만나 깃털을 떨어뜨려 汚染되거나 兒가 누워 있을때 侵入하여 이 疾患이 되는 것이다. 腦後에 核이 있어 初生에는 軟하여 痛을 知覺하지 못한다.그 가운데 蟲이 있으니 마치 米粉과 같고 速히 破去하지 않으면 熱氣가 漸漸 長하여 虫이 氣血을 따라 流散한다. 臟腑를 侵蝕하고 肌肉에 瘡을 發하며 或은 大便을 泄하고 膿血이 나오며 漸漸 黃瘦한다. 頭大하고 髮堅하며 手足이 細弱해지니 月蟾丸 十全丹 二連丸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綱目)고 했다." 또한 <醫學入門>에서는 "腦項邊에 核이 있어 轉動하고 軟하여 不疼한다. 그 가운데 蟲이 있어 米粉과 같고 速히 破하지 않으면 蟲이 熱氣를 따라 流散하니 臟腑를 淫蝕하고 肢體에 癰瘡이 生하니 대변에 膿血이 泄利한다. 壯熱이 있고 羸瘦해지며 頭露骨高한다. 初期에는 鍼을 사용하여 破하는 것이 가능하며 膏藥을 붙인다. 或은 兒衣를 빨아서 밤에 露天에 걸어 놓아서 새의 깃털이 떨어져 汚染되어 兒의 衣에 붙어 蟲이 皮膚로 入하기 때문이다. 其衣을 火를 사용하여 말리면 이런 우려는 없을 것이며 月蟾丸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幼幼集成>[33]에서는 "身體發熱하고 漸漸 黃瘦해지고 腦後項邊에 彈丸과 같은 核이 있어 按하면 따라서 動하고 軟하여 不痛하니 其中에 蟲이 米粉과 같다."라 하였다. 이로써 內因에 의한 疳症以外에 蟲이나 無辜鳥에 의한 疳症이 있음을 表現하였다.

또한 疳에는 異名으로 表現되어 있는 疳症이 있으니 <醫學入門>[27]에 말하기를 "驚疳은 面赤하며 盜汗이 있고 渴이 있다. 安神하면 退熱하며 衛榮를 滋養해야 한다. 驚疳은 心疳으로 心虛血弱하고 神不守舍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乳食不調를 加하여 心臟에 積熱이 있는 所致이다. 外證은 瞼赤脣紅하고 口舌에 生瘡하며 胸脅이 煩悶하고 小便赤澁하며 五心이 모두 熱한 것이다. 盜汗하며 發渴하고 嚙齒하고 驚悸하니 茯神丸이 마땅하다."고 하고 "風疳은 凉血하고 順氣한다. 搖頭揉目하며 便에 靑色이 많다. 風疳은 卽 肝疳이니 胎風으로 因한 것이 많으며 다시 乳食不調가 加해져서 肝臟이 受熱하거나 或은 乳母의 外感內傷에 邪氣未散하여 乳兒에게 전해진 所致이다. 外證은 搖頭揉目하고 白膜遮睛하며 或은 積腫眵漏하고 爛弦痛痒하며 雀目으로 昏暗한다. 甚하여 一月을 지나면 眼合되니 名曰 疳眼이라 한다. 汗流하고 合目而臥하며 肉色이 靑黃하다. 髮立 筋靑 腦熱 羸瘦하니 生熟地黃丸이 마땅하다."고했다. 또한 "食疳은 痞脹하며 溏泄이 많다. 磨積하고 退黃하면 脾가 漸次 안정된다. 食疳은 卽 脾疳이니 乳食傷으로 말미암아 거듭 脾氣를 傷하여 孤弱해지거나 或은 乳母가 生冷하고 肥膩한 飮食物을 恣食하거나 或은 酒飯後에 乳兒에게 젖을 주어 오래되면 變病되어 乳癖이 된다. 腹脅에 結塊가 生하니 乳疳이라 한다. 外證으로 黃瘦腹脹하며 氣促하고 泄瀉에 臭가 있고 合睡하며 食減하고 泥土를 먹으니 益黃散이 마땅하다."하고 "氣疳은 咳血하고 或聲啞하니 退熱化痰하면 肺가 自로 淸하여진다. 氣疳은 卽 肺疳이니 原因은 傷寒傷風에 汗後勞復하고 다시 乳食不調가 加해져서 肺氣受傷하여 發한다. 外證으로 鼻下兩傍에 瘡瘍이 있으나 不痛하고 或은 鼻流臭汁하면서 內部에 息肉이 生한

다. 或은 汗이 흐른 곳에 瘡을 이루니 疳蟲이라 한다. 不時에 咳嗽 氣逆하고 寒熱이 發하고 唾紅하며 泄瀉가 나고 多啼하며 揉鼻咬甲하는 것은 勞證과 大同하다"고 했다. "腎疳은 耳焦하고 天柱倒하며 齒脫하고 手足冷하여 얼음과 같다. 腎疳은 또한 急疳이라고 하니 痘後에 餘毒이 未淨하고 다시 乳食不調가 겸하여 甘味가 脾로 入하여 生蟲하는 것이 많다. 傷寒狐惑과 유사하며 上蝕齒齦하여 口瘡이 生하고 出血이 있거나 臭氣가 있다. 甚하면 齒齦이 潰爛하고 齒黑하여 脫落하고 腮에 구멍이 생기니 走馬疳이라 한다. 陽明熱氣가 말과 같이 上奔한다고 말한다. 下蝕腸胃하면 下痢하고 肛爛하니 後에 疳痢가 된다. 外證은 腦熱肌削하나 手足은 얼음과 같다. 瓜黑面黧하고 身에 瘡疥가 多發하고 寒熱이 時作時止한다. 甚하면 天柱骨倒하니 모두 腎氣丸이 마땅하다."고 하니 驚 風 氣 食 急 走馬疳은 五臟疳의 또 다른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疳의 分類중 病位에 따른 分類가 있으니 外疳 內疳 腦疳 脊疳 眼疳등이 그것이다. 腦疳은 <東醫寶鑑>[10,11]에서 말하기를 "腦疳은 鼻痒하고 毛髮作穗하며 面黃羸瘦(聖惠)하고 頭皮光急하다. 或은 頭瘡腫이 顯에 이르고 顯腫하면 眼을 손상하는 것이 많다. 項軟倒하고 肥而不瘦.....(湯氏)하니 腦疳은 滿頭하고 餠瘡하며 腦熱이 火와 같다. 顯腫顯高하고 遍身에 多汗하니 龍膽丸이 마땅하다."고 했다. <醫學入門>[27]에서 말하기를 "腦疳은 胎中에서 風熱을 俠하여 태어나서 乳食이 正常的이지 못하거나 或은 臨産시에 犯房하여 滿頭餠瘡에 이르니 腦熱如火하고 髮結作穗한다. 始終 顯高하고 遍身多汗하니 龍膽丸이 마땅하다"하고 <幼幼集成>[33]에서 말하기를 "腦疳은 皮毛光急하고 滿頭瘡餠하며 腦熱如火하고 髮結如穗 遍身에 多汗하며 腮腫顯高하고 兒로 하여금 眼痛하게 한다."했다. 脊疳은 <東醫寶鑑>[10,11]에서 말하기를 "小兒疳積으로 漸漸 黃瘦해지고 背部를 두드리면 북소리와 같고 脊骨이 鋸와 같으니 蘆薈丸을 服用하는 것이 마땅하다.(湯氏)"라하고 <醫學入門>[27]에서는 "脊疳은 蟲蝕脊膂하여 骨이 鋸齒와 같고 拍背하면 鼓鳴과 같다. 十指背에 生瘡하고 頻嚙爪甲한다. 煩熱이 있고 黃瘦하며 下痢하니 蘆薈丸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한 內外疳에 대한 分類에 관하여 <醫學入門>[27]에서는 "內疳은 痞結하여 漸漸黃瘦하여지고 外鼻가 赤爛하며 瘡瘍가 生한다. 疳證 初期에 中滿하고 久하면 結痞한다. 初患에 內熱하고 久에 外潮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肌膚黃瘦하고 或은 耳鼻生瘡한다. 或은 遍身에 瘡이 發하고 泥炭土米와 鹹味 酸味 雜果등을 먹기를 좋아한다. 飮食이 消化되지 않고 小便이 不淸하면서 大便이 도리어 泄利하니 大槪가 熱疳은 外證에 많이 보이고 冷疳은 內證에 많이 보인다."고 하여 疳의 內證과 外證에 관하여 分類하였다.

眼疳은 <東醫寶鑑>[10,11]에 "小兒疳眼은 雀目으로 或은 盲膜不見物하거나 或은 流膿으로 煎肝丸 龍膽飮子가 마땅하다.(綱目)"하였다.

以外에 臨床的으로 나타나는 症狀에 따른 分類가 있다. 즉 나타나는 症狀의 양상에 따른 分類와 併發하는 主要 症狀에 따른 分類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나타나는 症狀의 樣狀에 따라서 走馬疳 哺露疳 丁奚疳을 나눌 수 있다.

走馬疳은 <醫學入門>[27]에 말하기를 "腎

疳은 또한 急疳이라고 하니 痘後에 餘毒이 未淨하고 다시 乳食不調가 겸하여 甘味가 脾로 入하여 生蟲하는 것이 많다. 傷寒狐惑과 유사하며 上蝕齒齦하여 口瘡이 生하고 出血이 있거나 臭氣가 있다. 甚하면 齒齦이 潰爛하고 齒黑하여 脫落하고 腮에 구멍이 생기니 走馬疳이라 한다. 陽明熱氣가 말과 같이 上奔한다고 말한다. 下蝕腸胃하면 下痢하고 肛爛하니 後에 疳痢가 된다. 外證은 腦熱肌削하나 手足은 얼음과 같다. 爪黑하고 面黧 하다. 甚하면 天柱骨倒되니 腎氣丸이 마땅하다."하였으며 <幼幼集成>[33]에서는 "走馬疳은 蟲病이다. 齒는 腎에 속하고 腎은 虛를 主하니 熱邪를 받으면 直奔上焦하여 初起에 口臭가 나는 것을 臭息이라고 하며 다음에 齒黑하는 것을 崩砂라 한다. 甚하면 齦爛하니 潰漕라고 한다. 有血迸出하니 宣露라하고 甚하면 齒가 모두 脫落하니 腐根이라고 한다. 縱得全活하여도 齒는 復生하지 않는다. 外證은 腦熱 肌瘦하며 手足如氷하고 寒熱이 有時하며 滑泄하고 肚痛이 있으며 口臭가 나고 乾渴한다. 齒齦이 破爛하고 爪甲은 黧黑하며 身에 瘡疥가 多發하고 痘疹以後에 此證이 많은 것은 治療하지 못하니 毒이 腎에 歸하기 때문이다."라 하여 病의 進行에 따라서 자세히 分類하였다. 丁奚疳은 <醫學入門>[27]에서 말하기를 "丁奚者 腹大하고 頸細하며 黃瘦한 것이다. 丁은 手足과 項이 極小伶仃한 것이며 奚는 腹大한 것이니 甚하면 尻高肉削하고 臍突胸滿하다. 或은 穀癥이 生하고 生米土炭等物을 먹기를 좋아하니 十全丹 布袋丸을 服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 하고 <幼幼集成>[33]에서는"丁奚疳은 手足이 極細하고 項小骨高하며 尻削體瘦하고 腹大臍突하며 號叫하고 胸陷한 것이다."라 하였다.

哺露疳은 <醫學入門>[27]에서 보면 "虛熱이 往來하며 頭骨이 分解하고 도리어 食吐한다. 煩渴하며 嘔噦하고 骨瘦하여 稜層이 露形을 이룬다. 대개 丁奚 哺露는 모두 脾胃俱虛로 因하여 形體瘦削하거나 또는 胎稟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실로 모든 無辜種類는 難治이다. 大體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十全丹 布袋丸이 마땅하다."라 하고 <幼幼集成>[33]에서는 "哺露疳은 虛熱往來하고 頭骨分開하며 翻食吐蟲하며 煩燥嘔噦하는 것이다."라 했다.

다음은 併發하는 主要 症狀에 따라서 疳渴 疳勞 疳瀉 疳痢 疳腫 疳瘡등으로 나뉘게 된다.

疳渴에 관하여 <醫學入門>[27]에 말하기를 " 疳渴은 夜에는 도리어 감소한다. 疳渴은 臟中에 疳氣가 머물러 있는데 乳母가 五辛炙煿酒麵를 放恣히 먹어 小兒가 心肺壅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낮에는 煩渴引飮하고 乳食不進하며 밤에는 渴이 止하니 連膽丸이 마땅하다. 飮水不止하고 舌黑하는 者는 곧 死한다."라 하고 <幼幼集成>[33]에서 말하기를 "疳渴은 胃氣下陷으로 말미암아 津液不生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補其胃하여 淸陽을 上升시켜 津液漸生하면 渴은 스스로 止한다"고 했다. 疳勞는 <醫學入門>[27]에서 "疳勞는 骨蒸熱이 잇고 五心潮熱하며 盜汗하고 咳嗽하며 泄瀉한다. 頭頸이 돌과 같고 面色은 銀과 같다. 不可治한다."고 했다.

疳瀉는 <醫學入門>[27]에서는 "疳瀉는 毛乾하고 唇이 白色이고 額上에는 靑紋이 있다. 肚脹하며 腸鳴이 있고 泄下時에 糟粕이 섞여 있다. 熱藥으로 止瀉하는 것을

禁하니 香箑丸이 마땅하다."라 했으며 <東醫寶鑑>[10,11]에서는 "身瘦하고 面黃하다. 瘡疥가 있고 或은 泥土를 먹으며 靑白黃沫이나 或은 垢膩와 같은 것을 瀉하며 或은 泥와 같은 것을 瀉하는 데는 至聖丸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幼幼集成>[33]에서는 "久泄不止하여 胃虛하면 疳을 이루니 이를 疳瀉라고 한다."라는 定意를 하였다.

疳痢에 관하여 錢乙[30]은 "疳이 內에 있으면 目胞腫하고 腹脹하며 痢色이 無常하다. 疳痢는 黃白의 積이 있거나 或은 五色의 下利가 보이며 度가 한정이 없으면서 漸漸 瘦瘠해지는 것은 使君子丸 木香元이 마땅하다."라 하였으며 <醫學入門>[27]에서는 "疳痢는 五色으로 濕邪縈하다. 疳痢는 疳疾이 보이는 중에 傷食과 冷熱不調를 겸하여 五色의 下痢를 이루고 裏急後重하니 香砂丸이 마땅하다."라 하였다. <幼幼集成>[33]에서는 "久痢不止하여 胃虛로 疳을 이루니 이는 疳痢이다."라 했다.

또한 疳腫 疳瘡 疳瘧과 같은 症狀도 있으니 錢乙[30]은 疳腫을 "小兒疳病에서 虛中에 積이 있으면 身面浮腫 하고 肚腹脹大하니 肥兒丸이 마땅하다. 脹甚한 者는 褐丸子가 마땅하다."라 했고 疳瘡에 관하여 <醫學入門>[27]에서는 "脾疳 肾疳 모두 身에 瘡疥가 있다. 無辜疳에 虫氣가 流散肌肉이 作脹하다. 肺疳은 鼻下生瘡하니..... 疳病으로 遍體에 生瘡하고 이내 虫蝕皮膚하니 蘆薈丸, 月蟾丸, 化蠶丸을 服用함이 適當하다."고하였다.

<幼幼集成>[33]에서는 疳瘧에 관하여 "瘧이 오래도록 낫지 않고 胃虛하여 疳을 이룬다. 이는 必히 癖이 있는 것이니 疳瘧이라 한다."고 했고 疳乾은 <醫學入門>[27]에서 말하기를 "疳乾은 五臟이 모두 不平한 것이니 心疳은 舌乾 多啼하며 肝疳은 乾啼하고 眼不轉睛하고 脾疳은 撘口하고 癡眼하며 口乾하여 作渴하며 肺疳은 聲焦하고 皮燥하며 大便乾結하다. 腎疳은 身熱하고 肢冷하며 小便이 乾澁하니 古方에는 連膽丸을 通用한다"라 하여 五臟疳에 따른 乾의 症狀을 比較하여 言及하였다.

<醫學入門>[27]에서 말하기를 앞에서 言及한 疳傷症中에서 "疳乾 疳渴 疳勞 疳瀉 疳痢 疳腫 모두는 五疳의 危證이 되며 蛔疳 腦疳 肾疳 無辜疳 丁奚疳 哺露疳 모두는 五疳의 死證이 되니 이것은 五臟이 모두 病이 된 까닭이다."라 하였다

上記한 바와 같이 疳의 分類는 五臟疳의 分類를 그 基本으로 하고 症狀의 輕重과 臨床的 特徵및 疳症이 나타나는 部位에 따라서 細分되는 것이니 결국 五臟에 따른 分類로 歸結되는 것으로 思料된다.

Ⅳ. 結論

1. 小兒 疳症은 小兒가 營養이 적당하지 못하거나 或은 各種 疾病의 影響으로 脾胃가 損傷되어 傳化가 失調되고 臟腑가 營養을 받지 못하고 形體가 虛弱하고 面黃하며 羸瘦해지는 病症으로 小兒科에서 비교적 發病率이 높은 慢性 消耗性 疾患이다.

2. 疳症의 "疳"은 두 가지 意味를 含有한다. 첫째로 病因的 側面에서 肥甘厚味를 過食하여 疳症이 이루어지므로

"甘"의 意味를 가진다. 둘째로 그 病機와 나타나는 主要症狀的 側面에서 대개 疳은 脾胃津液이 乾枯해져서 誘發되며 臨床的 主症이 形體가 마르고 羸瘦해지니 "乾"의 意味를 含有한다.

3. 疳症의 原因은 乳食太過하거나 肥甘不節하여 脾胃氣가 損傷되거나 大病後나 吐瀉後에 脾胃虛弱하고 妄津液하여 이루어지니 모든 疳症은 脾胃의 病이 된다.

4. 疳症의 分類는 肝心脾肺腎의 五疳에 따른 分類를 基本으로 하며 그 外에 原因이나 發生部位 및 併發하는 症狀에 따라서 多樣하게 分類되나 五臟의 病理에 따른 기본적인 分類에 歸結된다.

以上에서 考察하여본 結果 小兒 疳症은 小兒의 成長發達에 支障을 招來할 수 있는 營養障碍를 誘發하는 疾患이므로 疳症의 豫防과 治療에 관한 多方面的인 硏究가 必要하리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1). 김수록:東醫小兒科學,서울,麗江出版社, 1993, pp.164-171
2). 김영남譯:國譯景岳全書,서울,一中社,1992, pp.183-187
3). 辛民敎外2人:國譯鄕藥集成方,서울,永林社,1989, pp.1563-1575
4). 이상원:小兒家庭醫學百科,서울,서문당, 1988, pp.165-170
5). 丁奎萬:東醫小兒科學, 서울,행림출판, 1985, pp.191-204
6). 丁奎萬:東醫小兒科學,서울,杏林出版社, 1985, pp.66-81
7). 丁茶山: 丁茶山小兒科秘方,서울,杏林出版社,1982, pp.41-43
8). 崔奎憲:小兒醫方,서울,廣學書보,대정원년, pp.43-45
9). 東醫學硏究所譯 許浚著: 東醫寶鑑,서울,麗江出版社,1994, p.2405
10). 許浚:,東醫寶鑑,서울,大星文化社,1990, pp313-316
11). 許浚:東醫寶鑑,서울,麗江出版社,1994, pp.2405-2419
12). 金德坤外2人:虛弱兒의 臨床的 考察, 서울,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Vol.3, No.1,1989, pp.79-83
13). 愼元揆外3人:小兒虛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서울,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Vol4, No.1, 1990, pp.113-119
14). 兪太燮外3人:虛弱兒에 對한 文獻的 考察,서울,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Vol. 4 No.1,1990, pp.66-77
15). 李宗宇外3人:小兒 食慾不振에 對한 文獻的 考察,서울,大韓韓方小兒科學

會誌,Vol.5, No.1, 1991, pp.65-73
16). 江育仁:中醫兒科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7, pp.113-115
17). 高鏡朗:古代兒科疾病新論,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3, pp.29-32
18). 上海中醫學院:中醫兒科學,香港,商務印書官香港分館,1976, pp.76-83
19). 巢元方,諸病原候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p.252,286
20). 孫思邈,千金要方,서울,大星文化社, 1984, p.285
21). 沈金鰲,幼科釋謎,北京,上海科學技術出版社,1959, pp.37-45
22). 哀誠傳,中醫兒科學,北京,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7, pp.143-148
23). 吳克潛:吳氏兒科學,臺灣,新文豊出版公司,中華民國66年, pp.96-99
24). 虞博,醫學正傳,서울,成輔社,1986, p.398
25). 王伯岳外1人:中醫兒科學,서울,圖書出版鼎談,1994, pp.176-180
26). 汪受傳:小兒疳症,北京,中醫古籍出版社,1986, pp.1-10
27). 李梴,編註醫學入門,서울,大星文化社,1990, pp.134-144
28). 張介賓:景岳全書,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9, pp.718-720
29). 張奇文:兒科常見病証,北京,山東科學技術出版社,1990, pp.347
30). 錢乙:小兒藥證直訣,서울,醫聖堂,1994, pp.21-23
31). 曺伯嗣,嬰童百問,北京,上海人民出版社,1985, p.12
32). 曾世榮,活幼心書,北京,北京市中醫書店,1985, pp.314-316
33). 陳復正,幼幼集成,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8, pp.208-219
34). 秦昌遇:幼科折衷,北京,中醫古籍出版社,1990, pp.12-13
35). 何珉:中醫兒科學,貴州,貴州人民出版社,1990, pp.153-165
36). 上海中醫學院:中醫兒科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pp.76-82
37). 王肯堂:幼科證治準繩,서울,大星文化社,1992, pp.627-635